

축 사

오늘은 우리나라 천태종의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上月圓覺大祖師)의 탄신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날입니다. 대승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최고봉이라고 할 때 그 양대 산맥이 되는 화엄사상과 천태사상의 성립에 역대 조사님들이 끼친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선조 500여 년 동안 이어진 승유억불정책으로 인해 종파가 사라지고, 일제강점기의 왜색불교 만연과 서구 종교의 유입이라는 누란의 위기는 새롭게 각성한 눈 밝은 선지식과 민족적 자각을 이룬 종교가를 배출하는 토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상월원각대조사님은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출현한 훌륭한 선지식이었습니다.

지난 1966년, 종통이 끊어진지 500여 년 만에 천태종을 새롭게 중창한 상월원각대조사께서는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3대 지표로 삼아 새로운 불교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소비불교에서 생산불교로, 기복불교에서 작복불교로, 이론불교에서 실천불교로 전환을 추구하는 이 3대 지표는 천태종 사부대중의 신행 지표가 되었고 나아가 우리 불교계가 공리공론을 지양하고 실천적 활동을 추구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대조사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그동안 천태종은 새로운 신행운동을 지속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 대회를 개최하는 등 탄신을 기념하는 행사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활동은 대조사의 사상을 새롭게 계승하는 작업이며, 새로운 신행 활동의 틀을 제시하는 과정인 동시에 천태종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던 과제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식민지에서, 가난에서, 무지에서 해방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현시대는 다문화와 다종교의 문제는 물론 남북의 분단과 같이 다양한 것을 원만히 통합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과제는 우리 불교인들 또한 모두 함께 짚어진 과제입니다. 비록 수행에 삼승(三乘)이 다름이 있다 해도 모두 일불승(一佛乘)의 가르침으로 돌아간다는 회삼귀일(會三歸一)의 가르침처럼 불교는 분열과 대립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인의 실천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작을 모두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은 동지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날이 길어지기에 생명력과 광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였고 과거에는 작은 설로 기념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상월원각대조사의 탄신 100주년 기념 다례를 맞아 대조사님의 사상을 새롭게 계승하여 우리 불교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새로운 날로 삼기를 기원하며 축사에 대신합니다.

불기2555년 12월 22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